

7월26일(월)/로마서6:1~11 (1)

제목: 죄의 입맛을 잃은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2절)는 말은 죄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은혜 속에 살아야지 또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2절)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죄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의식이라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다. 말이 없다. 행동도 없다. 의욕도 없다. 욕망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입맛을 잃었다. 그런데 어찌 다시 죄를 입에 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십자가가 이미 그를 죽였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극기에 의해서, 절제에 의해서, 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에게 죄가 꿈틀거리면, 거기에 다시 집착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 다시 우리를 죽이는 체험을 하게 된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항상 죄에 대해서 입맛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7월27일(화)/로마서6:1~11 (2)

제목: 크리스찬의 자기 정체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해서 자기의 옛 사람 옛 자아, 옛 성향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6절). 동시에 예수와 연합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다시 그와 연합해서 부활하게 된다(4~5절, 8~10절)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부활은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장차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인가?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즉, 스스로도 이런 자기 정체감을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를 은혜의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내가 나를 의인으로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의인으로 여기겠는가? 우리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불신앙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말은 소망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뜻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그래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삶을 굴리지 않는다. 그래야 허탄한 곳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

7월28일(수)/로마서6:12~14

제목: 죄를 멀리하는 비결

죄가 사람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않는 것이다(12절). 가지고 싶은 욕망, 되고 싶은 욕망 자체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몸을 의에 무기로 드리는 것이다(13절). 무기는 군사적인 용어이다.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 앞에서 ‘왜?’ 라고 묻지 말아야 한다. 크리스찬은 대장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도구처럼, 물건처럼 쓰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14절). 적극적으로 몸을 의의 무기로 쓰면 죄를 이기게 된다.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몰두할 때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빠진다. 학생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학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빠지지 않는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드리는 동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항상 빈둥 빈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사고를 치게 되어있다.

7월29일(목)/로마서6:15~23

제목: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어디에 종이 되어있는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지, 은혜의 종이 되어 있는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16~18절).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 지식의 노예, 명예의 노예, 술의 노예, 혈기의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 사랑의 노예, 진리의 노예로 살아간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며, 반대로 진리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영생을 보상 받는다(21~23절).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노예가 되어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진단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쁘는지 보면 된다. 의를 행할 때 편한지 아니면 쾌락을 누릴 때 기쁘는지 보면 된다. 그리고 내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된다. 보는 사람만 없으면 어디론가 새려고 기웃거린다면 그는 분명히 죄의 노예가 되어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홀로 있을 때도 주의 일이 생각나고 교회 일이 궁금하고,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염려된다면 그는 의의 노예가 되어있는 사람이다.

7월30일(금)/로마서7:1~6

제목: 이혼하고 결혼합니다.

바울은 결혼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한다. 여자는 남편에게 결혼하면서부터 완전히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결혼도 할 수 있다(2~3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 여기서 남편은 죄와 율법을 가리킨다. 과거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과거 죄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그 정욕 속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율법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저주와 심판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4절)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면 그 옛 남편인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완전히 청산되어야 한다. 새 결혼은 이혼 후에만 가능하다.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혼하고 나서 결혼할 수 있다. 예수님과 결혼 한 사람은 죄와 율법과의 관계가 법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죽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면 옛 사람과는 완전히 이혼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옛 사람에 대한 의식, 감정, 기억까지도 완전히 끊겨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옛 것과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는가? 혹시 그를 자주 만나며 다니고 있지 않은가?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